

[회의록]

과제명	구술사에서 공공역사 전환: 이론적 쟁점 검토와 실천적 대안 모색		
연구책임자	Park Christian Joon (박준규)	참석자수	10명
일시	2023.3.17.(금) 14:00 ~ 16:00	장소	Zoom 사용
참석자명	내부: 박준규, 안승택, 윤택림, 황현정, 김태인, 심종우, 김아람, 한봉석 외부: 유명희(춘천학연구소), 정미경(광주여성가족재단)		
회의 제목	지역에서 구술채록사업의 현황과 과제		
회의안건 및 회의내용	유명희 발표 - 요즘 지역학에서 아카이브 문제가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다. - 춘천학연구소에서는 구술채록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춘천시민의 역사를 구술사로 기록하고 있다. - 특히 ‘시민이 시민을 기록한다’는 취지 아래 시민기록단을 운영하여 구술자와 면담자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. - 2022년 현재 183권의 개인 생애담 아카이브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술서와 교양잡지를 만들고 있다. - 춘천의 근현대사 중 주요한 주제를 잡아 증언록을 년 1회 발간하고 춘천의 소시민들의 일상적 역사를 읽기 쉽게 매거진으로 만들어 년 2회 발간하고 있다. - 이 구술채록, 구술사 사업을 통해, 세대간 소통 가능성과 지역활동가 발굴 가능성을 열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. 정미경 발표 1. 광주여성사 프로젝트 - 여성사의 전제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- 여성사 연구의 현황 2. 방직공장 여성노동자의 생애구술		

- | | |
|--|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방직공장이 광주에 의미하는 것- 방직공장 여성노동자의 삶- 담론과 진실, 혹은 개인 <p>3. 광주시민이 기록하는 광주여성의 역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광주여성 구술채록단 양성 과정- 삶을 고민하고 확장하는 실험- 당신의 이야기, 나의 이야기, 공동체의 이야기 <p>4. 이름을 찾다, 의미를 얻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방직공장 구술채록집이 남긴 것- 성과와 과제 |
|--|--|